1강. 한국인, 한국문화, 한국사상

김 교 빈 (호서대학교)

1. 문화의 세기와 우리 문화

21세기는 문화의 세기이다. 과학기술의 발전에 힘입은 교통, 통신의 발달이 지구를 한 마을처럼 좁혔고 그 속에서 각 나라들은 가혹한 경제전쟁을 벌이고 있지만 더 심각한 전쟁은 지금도 치루고 있고 앞으로 더욱 심화될 문화전쟁이다. 그 이유는 대부분의 민족단위 국가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 강화하는 길이 자신들의 고유문화와 그 문화의 기반을 이루는 사상의 보존과 확산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역사적으로 보면 18세기 이후 서양이 동양을 압도해 오면서 동양 여러 나라들의 문화와 사상은 전근대적이고 비합리적이며 비과학적이라는 비판을 받았었다. 아직도 그런 평가가 말끔히 씻어진 것은 아니지만 오늘날은 여러 가지로 여건이 달라져 가고 있다. 그러한 여건이 만들어진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는 서구자본주의가 파생시킨 도덕적 타락과 인간성 상실, 환경오염으로 대표되는 생태학적 위기 등이 서구문화와 그 근간을 이루는 서구사상을 반성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 동양의 여러 나라들이 국가 간의 냉혹한 경쟁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하여 고유문화와 사상에 주목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 서양인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까지도 동양의 문화와 사상이 비과학, 비합리,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했던 것은 매우 잘못된 인식이었다. 동양이 추구한 이상적 인간형인 성인(聖人)이나 그 성인이 추구하는 道는 결코 주관적이나 신비한 것이 아니라 아주 현실적인 것이었다. 물론 동양철학에 신비적이고 주관적인 탐구 방법을 추구한 경향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런 요소는 서양철학에도 얼마든지 있었다. 따라서 동양에 대한 오해는 문화적 차이를 잘못 이해한 데서 온 것이다.

예를 들어 달력을 보자. 우리의 전통력은 태음태양력이었다. 태음은 달을 뜻하고 태양은 해를 뜻한다. 특히 전통력의 '24절기'는 태양의 움직임을 알 수 있도록 한 것이기 때문에 농사짓는 일에는 아주 정확히 들어맞았다. 따라서 전통력이 양력에 밀려난 것은 과학성이 부족해서가 아니었다. 현재의 양력보다 더 정확한 '세계력'이 1954년 유엔에 상정되었지만 강대국들의 종교적 전통 때문에 채택되지 못하였다는 사실은 그런 점을 잘 보여준다.

2. 동·서양 사유체계와 문화의 차이

사실 동양과 서양은 처음부터 서로 다른 사유구조를 지니고 있었으며 그러한 차이는 현실에서도 다양하게 드러났다. 이같은 차이는 각각이 살아온 자연조건 또는 기후조건들과 무관하지 않

다. 먼저 생존양식이 달랐던 데서 오는 문화의 차이를 보자. 동양은 일찍부터 농경이 정착되었지만 서양은 오랜 기간 유목이 계속되었다. 이같은 차이는 가족제도에서 가부장적 윤리를 중심으로 한 종적윤리와 부부 중심의 횡적 윤리라는 차이를 낳았으며, 사회적으로는 자본주의 단계로의 이행이 쉬웠느냐 그렇지 못했느냐의 차이를 낳았다. 또 다른 면으로는 자연에 대한 이해에서 자연을 극복 또는 이용 대상으로 보는 것과 합일 대상으로 보는 차이를 낳았다. 이것은 인간에 대한 이해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이같은 인식의 차이는 예술을 통한 표현 방식에서부터 내세에 대한 견해까지를 다르게 만들었으며, 사유체계에서는 기계론적 세계관과 유기체적 세계관의 차이로 드러나고 있다.

3. 한국문화와 사상의 특징

그렇다면 같은 동양의 경우 특히 동아시아에 속하는 한국·중국·일본은 어떠한가. 물론 이 세 나라는 오랜 역사를 거쳐 오면서 문화와 사상의 많은 부분을 공유해 왔다. 따라서 그 나라들 속에서 보편적인 요소를 찾는 일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러한 대표적인 예로는 전통사회에서 가장 큰 역할을 담당했던 유교·불교·도교를 들 수 있다. 그러나 토양이 다르면 꽃과 열매가 달라지듯이 세 나라는 같은 사상을 받아들였어도 서로 다른 모습으로 발전시켜 갔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불교·중국불교·일본불교라든가, 중국유교·한국유교·일본유교라는 표현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예를 들어 불교의 경우는 부처와 보살, 나한 등의 표정만 보더라도 세 나라가 모두 다른 특징을 보이고 있다. 한국의 불상들이 입가에 은은한 미소를 머금은 인자한 모습인 반면, 중국 불상은 매우 근엄한 모습과 굳은 표정을 지닌 위압적인 모습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일본 부처는 얼굴 표정을 일그러뜨린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무엇인가 고민에 싸여 있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그래서 세 나라 불교의 특징을 한 글자로 나타낸다면 한국불교는 '자(慈)'이고, 중국불교는 '위(威)'이며, 일본불교는 '고(苦)'라고 한다.
유교의 경우도 조금씩 다른 모습을 보인다. 구체적으로 유교 덕목에 대한 해석이나 그에 따른 실천을 보면 그 차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유교의 가장 중심 개념인 인(仁)에 대한 해석의 경우 중국이나 우리나라가 나를 기준 삼아 남을 생각하는 '추기급인(推己及人)'이라면 일본은 남을 기준 삼아 내 행동을 결정하는 '추인급기(推人及己)'로 나타나기도 하였다. 예를 들어 창문이 열려 있다면 '내가 이렇게 추운데 남은 얼마나 추울까'하는 마음에서 창문을 닫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라면, '비록 내가 춥더라도 남들이 더워하는 것 같으니 내가 참아야지'하는 것이 일본의 입장이다. 뿐만 아니라 의(義)에 대한 해석과 실천에서도 많은 차이를 보인다. 우리에게 '의'는 옳고 그름이었으며, 의리(義理)란 옳음을 지켜내는 것이었다. 따라서 옳지 않은 일을 스승이 요구한다면 스승과도 결별하는 것이 바람직한 실천이었다. 그러나 일본에서도 '의'가 옳고 그름이었지만, 구체적으로 옳음을 지켜내는 의로운 행동은 목숨을 버려서라도 주군의 명령을 지키거나 그 원수를 갚는 일이었다. 따라서 주군의 명령을 지키지 못하거나 원수를 갚는 일이 불가능하다고 생각될 때 그들이 택하는 마지막 실천이 할복이었다. 이것은 구체적인 일마다 옳고 그름을 따지는 우리의 해석이나 실천과는 매우 다른 모습이었으며, 오늘날 우리 사회 폭력집단의 의

리는 바로 일제 하 일본문화에서 온 왜곡된 모습일 뿐이다.
도교의 경우도 매우 다른 모습을 보인다. 중국 도교는 한나라 말기 유행한 엄청난 전염병의 유행 속에 대다수 민중들이 불교와 도교에 귀의하면서 큰 세력을 이루었다. 그 뒤 수백 년에 걸친 위진남북조의 혼란을 해결한 수나라와 당나라가 대다수 민중이 따르는 불교와 함께 도교를 국교로 받들면서 완전한 종교로 자리 잡았다. 물론 우리 경우도 동학사상이나 대종교를 비롯한 근대 신흥종교들 대부분이 도교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근대 종교들에 보이는 것처럼 현실에 별 관심이 없어 보이는 도교 속에 뜻밖에도 엄청난 민족주의가 담겨 있는 것이다. 그 이전의 경우를 보아도 마찬가지이다. 불교와 도교를 중시했던 고려에서는 하늘에 제사 지내는 도관이 많았다. 복원궁, 신격전, 태청관, 태일관, 구요당, 청계배성소 등이 모두 그러한 역할을 하였으며 이름도 궁이나 전이었다. 그 뒤 유학을 신봉한 조선에 들어와 도교 숭배가 위축되기는 하였지만 도관들을 없애버리기보다는 소격전 하나로 통합하였다. 그리고 대다수 유학자들이 미신이라고 비판하기도 하고, 하늘에 대한 제사는 중국 천자만이 지낼 수 있는 것이라며 헐어버릴 것을 주장하기도 하였지만, 왕실에서는 역대의 전례임을 내세워 그대로 유지시켜 갔다. 이 같은 논란 속에는 왕과 신하들의 대립과 함께 민족 주체성을 지키려는 의도가 담겨 있는 것이다. 또한 도교의 하늘에 대한 제사는 천체관측과도 연결되어 있었다. 따라서 조선 태조 때 만들어져 덕수궁 궁중유물전시관에 보존되어 있는 [천상열차분야지도(天象列次分野之圖)]는 하늘에 대한 제사 과정에서 당연히 전개되는 천체관측의 결과가 낳은 또 다른 문화유산인 셈이다.
이러한 차이는 바로 주체성을 바탕으로 나오는 것이며 그 결과가 다시 주체성을 강화해 가는 것이다. 사실 어느 민족이나 민족의 존립 근거는 주체성이다. 주체성은 민족 내부의 동질성을 보장하는 기반인 동시에 다른 민족과의 차별성을 드러내는 근거이기 때문이다. 물론 민족 또는 국가 간의 협력과 조화가 강조되는 오늘날의 국제화시대에는 특수성에 기반을 둔 민족 주체성보다는 인류의 보편성이 중심 과제인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국제화도 민족의 존립이 없다면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다.
민족 주체성을 구성하는 요소는 다양하다. 고유 언어와 관습, 같은 경험을 토대로 한 오랜 역사, 동일한 사회체제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하지만 그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민족의 고유한 사상과 문화이다.

4. 한국문화와 한국사상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한국 문화와 사상이 한국 사람들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 물론 한국 사람만 한국문화와 사상을 배우고 연구하는 것은 아니다. 외국 사람들도 얼마든지 한국문화와 사상을 배우기도 하고 연구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한국 사람이 한국문화와 사상을 연구하는 것과 외국 사람이 한국문화와 사상을 연구하는 것은 무엇이 다른가? 외국 사람이 한국문화와 사상을 연구할 때는 그 목적이 한국문화나 사상을 발전시키려는데 있지 않다. 한국 문화와 사상의 핵심을 이해함으로써

한국인의 사유구조와 의식을 알려는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자기 나라의 이익에 보탬이 되게 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그 경우는 아무리 좋게 평가해도 수단으로서의 연구를 벗어 날 수 없다.
그렇다면 한국 사람이 한국사상이나 문화를 탐구하는 의미는 어디에 있을까? 우리에게는 우리 사상이나 문화의 탐구가 수단이 될 수 없다. 우리는 우리 사상을 탐구하여 한국 문화와 사상의 본 모습을 찾아내고, 외국의 사상가들이 자기들의 사상을 탐구한 결과를 들여다가 우리 사상을 풍부하게 만들며, 우리의 사상 가운데 재현이 가능한 것들을 오늘 우리 사회의 발전을 위해 새롭게 재구성해 내기도 한다. 그러므로 한국 사람에게 한국 사상 탐구의 의미는 수단이 아니라 목적인 것이다.
한국 사상이나 문화는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다. 숱한 과거의 흐름이 고대부터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다. 물론 오늘의 사상이나 문화도 새로운 미래로 이어질 것이다. 사실 어떠한 경우든 과거에 뿌리를 두지 않은 현재는 없으며 어떠한 현실도 고정된 상태로 있지는 않는다. 현실은 언제나 과거의 전통 위에 서 있으며, 지금 현실도 머지않아 새로운 현실에 대해 전통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물론 전통사상이나 문화 가운데에는 버려야 할 것도 많다. 그러나 동시에 계승해야 할 것도 있다. 그러므로 언제나 비판적 태도와 함께 열린 마음으로 우리의 사상과 문화를 보아야 할 것이다.
중국은 근대 이후 어려운 상황에 닥칠 때 마다 자신들의 문화문제로 돌아가 답을 얻으려 하였다. 근대 시기 5 · 4 신문화운동이 그렇고, 사회주의 성립 이후의 문화대혁명이 그러하며 오늘날 개혁개방 이후의 문화열이 그러하다. 이 점은 우리가 타산지석으로 삼을 만 하다.
사실 우리에게는 앞 서 언급한 것처럼 수많은 문화유산이 있다. 기록문화에 뛰어난 우리 선조들의 예는 [왕조실록], [검안] 등에 잘 나타나 있다. [무예도보통지] 같은 책을 통해 오늘날 게임의 다양한 무기들의 아이템을 찾을 수도 있다. 전통 문양들이 포장 디자인을 넘어서 의상디자인으로까지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문화관광부는 '한브랜드'를 세계화 추진의 전략으로 내놓았다.
더 고대의 다양한 문화유산들 또한 당시 사람들의 사유체계를 현실에 드러낸 것일 뿐이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이를 보고 찾아내는 우리의 눈이다.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보는 장자의 지혜가 필요하리라.